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1.③ 2.① 3.③ 4.② 5.④ 6.② 7.④ 8.④ 9.⑤ 10.③
 11.③ 12.④ 13.④ 14.② 15.① 16.③ 17.④ 18.② 19.① 20.⑤
 21.③ 22.② 23.① 24.① 25.③ 26.⑤ 27.③ 28.⑤ 29.⑤ 30.②
 31.⑤ 32.③ 33.② 34.⑤ 35.② 36.① 37.② 38.④ 39.③ 40.①
 41.② 42.② 43.⑤ 44.④ 45.⑤ 46.③ 47.⑤ 48.④ 49.① 50.①

[1-5] 듣기

1. 이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재치 있는 말솜씨나 재미있는 행동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웃음을 유발하여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살짝 꼬집을 때나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웃게 됩니다. 또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도 웃음을 유발하지요. 그리고 번뜩이는 재치로 상대방의 기대나 예상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이지요. 마지막으로 찰리 채플린처럼 특이한 표정과 몸짓으로 과장해서 행동할 때도 웃음이 유발됩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어 보시지요.

어느 연극에서 배우가 해엄을 치기 위해 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관객이 볼 수 없는 무대 세트 뒤로 배우가 뛰어내리면, 음향 담당자가 물통으로 ‘침뽕’하는 효과음을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 담당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연출자의 지시를 놓쳤습니다. 주인공이 뛰어내릴 때, ‘침뽕’ 소리가 나야 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순간 무대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배우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강물이 퐁퐁 얼어붙었군.” (휴지)

그 순간 관객들은 박수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강연의 전반부에서 재치 있는 말솜씨나 행동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고 활기차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웃음을 유발하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구체적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배우가 강으로 뛰어들어 해엄을 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음향 담당자의 실수로 ‘침

병’ 소리가 나지 않고 ‘쿵’ 소리가 들린 것이다. 갑작스런 상황이었지만 배우는 당황하지 않고 번득이는 재치로 강물이 얼었다는 말을 하였고,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배우의 말에 웃음을 터트린 것이다. [정답] ③

2. 다음은 수업 중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사 :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민요를 채록하는 과제가 있는 거, 모두들 알고 있지요?
학생 : 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사 : 우선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께 민요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녹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요와 관계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죠. 먼저,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옛날에 부르던 또 다른 민요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학생 :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조사해야 되나요?
교사 : 마을의 가구 수와 연령층, 마을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그 마을에 전래되는 설화나 풍습 등을 조사하면 민요가 생겨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되지요.
학생 : 아, 이제 좀 알겠네요. 선생님,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나요?
교사 : 그것 외에도 민요의 성격을 알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유월 염천 한더위에 나락도 좋고요, 땅 파는 힘이 얼마나 좋은고요.’라는 민요 가사 생각나지요? 이 대목을 보면 농사와 관련된 민요라는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서 심화된 자료를 모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면 그 민요의 학술적, 민속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교사와 학생의 대화는 민요를 채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학생들의 질문에 교사는 민요 채록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것을 조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교사의 마지막 설명 부분에 따르면, 민요의 민속적 가치는 대상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민요를 채록하여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교사는 마지막 설명 부분에서 민요의 성격을 알기 위해 민요가 불릴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서 심화된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③ 교사는 두 번째 설명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④ 교사는 두 번째 설명 부분에서 마을에 전래되는 설화나 풍습 등을 조사하면 민요가 생겨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다고 했다. ⑤ 교사는 첫 번째 설명 부분에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고 옛날에 부르던 또 다른 민요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도 알아 두어야 한다고 했다.

3. 다음은 홈페이지 소개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조선 시대의 문화 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자 지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시간, 공간, 주제라는 세 가지 항목과 관련된 정보들이 마치 필름을 하나하나 엮듯이 입체적으로 제공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장’에 대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후,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서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선 중기 한양의 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시간 항목에서 ‘조선 중기’, 공간 항목에서 ‘한양’, 그리고 주제 항목에서 ‘시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선 중기 한양의 시장들이 한 번에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각 지역에 분포한 시장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한눈에 볼 수도 있지요. 또 검색 시 공간 정보를 시장 주변으로 확대하면, 그 시장과 주변 마을의 정보를 추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자 지도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와 같이 시대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880년부터 1890년 사이와 같은 세분화된 연도별 검색은 어렵습니다.

이 전자 지도는 정치 상황이나 당시의 행정적 사항들, 그리고 생활 문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신이 살펴보려는 주제와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어 검색한 정보들의 생생한 모습을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원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3. 비판적 사고(수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인터넷을 통해 조선 시대의 문화 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시간, 공간, 주제의 세 가지 항목과 관련된 정보들이 입체적으로 제공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구체적 정보를 사례로 검색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한편 시간에 대한 검색은 조선 전기, 중기, 후기와 같이 세 단계로 정보를 제공하기에 세분화된 연도별 검색은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서원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는 반응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시장을 사례로 설명할 때, 각 지역에 분포한 시장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한눈에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서원의 위치 역시 전국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② 검색 시 공간 정보를 시장 주변으로 확대하면, 그 시장과 주변 마을의 정보까지 추가해서 볼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서원과 주변 마을의 정보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전자 지도는 정치 상황이나 행정적 사항들, 생활 문화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설정되어 있어서 살펴보려는 주제와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다고 했다. ⑤ 마지막 부분에

서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제공하고 있어서 검색한 정보의 생생한 모습을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4 ~ 5. 다음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남 : 발표회 때 사용할 공간을 어떻게 정할지 얘기 좀 하자. 선생님께서는 발표회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과 별관 꼭대기 층 교실만 남았다고 하셨어. 너희 문예부는 조용한 곳에서 시화전을 하는 것이 좋을 테니, 우리 천체 관측부가 제일 시끄러운 중앙 계단 옆 교실로 가 줄게.
- 여 : 원래 중앙 계단 쪽은 왕래가 잦아 모든 동아리들이 탐내는 명당 중 하나야. 우리 동아리가 별관 꼭대기로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니? 그 이유가 뭐야? 너 지금 우리 문예부 생각해 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명당을 차지하려는 거 맞지?
- 남 : 뭐,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너희는 시화전을 할 건데, 시를 감상하기에는 조용한 곳이 더 좋잖아.
- 여 : 별관 꼭대기는 별자리를 소개하려는 너희 동아리에 더 제격이야. 서로 양보 못하겠다고 버티기만 한다면 이야기해 봐도 뽀족한 수가 없겠네. 그럼 이대로 그만두자.
- 남 :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동아리는 너희만큼 알려지지 않아서 별관 꼭대기 층에 있으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야. 너흰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동아리라 어디에서 발표회를 해도 상관없잖아.
- 여 : 그렇지도 않아. 다른 건 몰라도 중앙 계단 옆 교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 자리는 우리 동아리 최후의 보루야.
- 남 : 너희는 내년에 더 좋은 자리에서 하고, 올해는 우리에게 중앙 계단 옆 자리를 양보해 줘.
- 여 :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차라리 너희가 양보 좀 해 줘. 너희가 양보해 준다면 전에 부탁했던 별과 관련된 문학 작품도 찾아 주고, 청소도 해 줄게.
- 남 : 발표회 준비도 도와주고, 청소를 해 주겠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장소가 더 중요해.
- 여 : 그럼, 우리 두 동아리 모두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함께 하는 건 어때? 우리 문예부가 시화전 주제를 ‘시와 별’로 바꾸면, 별자리를 소개하려는 너희 주제와도 어울려서 좋고 발표 내용도 더 알차게 될 거야. 우리가 주제를 바꾸는 대신에 너희 동아리가 공간 장식 좀 도와줄래? 그리고 별관 꼭대기 층에 있는 교실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자.
- 남 : 와, 그런 방법도 있었네. 좋아.
- 여 : 그럼, 이제 합의한 거다. 우리 서로 잘 해 보자.

4. 비판적 사고(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

정답해설 : 남학생과 여학생이 발표회 때 사용할 공간에 대해 협상하는 대화이다. 여기에서 여학생이 말하는 협상 전략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지를 묻고 있다. 남학생은 두 번째 대화에서 여학생이 자신의 의중을 찌르는 질문을 하자,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시화전은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이 말에 여학생은 별관 꼭대기는 별자리 소개하는 천문 동아리에 더 제격이라 반박을 하고는, 양보 못하겠다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그만두자고 강하게 배수진을 친다. 그러므로 이 말에 담긴 전략은 대화 자체는 물론 행사도 거부하겠다는 행동으로 상대로 하여금 양보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상대가 먼저 제안하게 하여 생각할 여유를 가지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그러면 서로의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정도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위 대화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먼저 남학생이 천체 관측부가 시끄러운 중앙 계단 옆 교실을 사용할 테니, 문예부는 조용한 꼭대기 교실에서 시화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에 여학생은 그 이유가 뭐냐고 묻다가 우리 문예부 생각해 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명당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냐고 상대의 숨은 의도를 확인한다. ③ 여학생의 강한 압박에 남학생은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며, 문예부는 유명한 동아리라 어디에서 발표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한다. 이 말에 여학생은 중앙 계단 옆 교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며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④ 남학생이 문예부는 내년에 좋은 자리에서 하고 올해는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부탁하자, 여학생은 오히려 천체 관측부가 양보하면 자신들이 작품도 찾아주고 청소도 해 주겠다고 새로운 제안을 한다. ⑤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의를 거부하고,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말에 여학생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두 동아리가 같이 발표회를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남학생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다.

5.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하겠다며 대립하다가 마지막에 합의에 이른다. 합의 내용은 두 동아리가 중앙 계단 옆 교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서로 도와주면 발표회가 알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남학생의 천체 관측부는 본관 중앙 계단 옆 교실에서 별자리를 소개할 것이다. **[정답] ④**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②의 ‘새로운 정보가 지나치게 유입되면’의 내용은 ①의 ‘폭우’와 대응시킬 수 있는데, ①에서는 폭우가 내리면 토양이 침식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②에

도 토양의 침식에 대응하는 내용을 생성하여야 한다. 그림의 [착안점]에서 토양은 사회의 지적 기반과 같게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토양이 침식된다는 것은 사회의 지적 기반 훼손을 뜻한다. 그런데 ‘개인 간 갈등이 유발된다’고 한 것은 사회의 지적 기반의 훼손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 간의 갈등이 사회의 지적 기반이 훼손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갈등이 잘 해결되어 지적 기반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착안점]에서 나무가 개인에, 숲이 사회에 대응한다고 보았으므로, ㉠의 ‘오염된 비’에서 ‘그릇된 정보’를, ‘숲과 나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서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④ ㉡의 ‘딱딱하게 굳은 토양’에서 ‘지적으로 경직된 사회’를, ‘빗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에서 ‘새로운 정보의 수용이 쉽지 않다’를 연상해 낼 수 있다. ⑤ ㉢의 ‘나무’에서 ‘개인’을, ‘토양의 수분을 흡수하며’에서 ‘사회적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를, ‘(나무가) 자란다’에서 ‘(개인이) 성장한다’를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7. 창의적 사고 (개요의 수정과 보완)

정답해설 : ④의 ‘낙후된 교실 환경’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는 내용은 <보기>에 제시된 개요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다. 개요의 주제는 ‘학교 휴식 공간’에 관한 것인데, 수정될 내용은 ‘낙후된 교실 환경’에 관한 것이므로 개요의 흐름을 벗어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휴식 공간’에 관한 글에서 ‘여가 활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휴식 및 친교 기능의 공간 요구’로 바꾸는 방안도 적절하다. ② ‘자연 친화적 공간 활용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은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해당한다. 또 ‘학교 옥외 공간의 활용 방안 부재’는 현 상황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⑤ ‘~한 학교 옥외 쉼터의 제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옥외 쉼터를 조성하자’는 주제에 잘 어울린다.

8. 비판적 사고(자료의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의 자료 1은 1인당 ‘독서량’에 관한 내용이고, (다)의 자료 2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특히 (다)의 2에서 어휘력 부족이 글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어휘력 부족이 독서 기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② (나)의 2-을 활용하면, 독서량 감소가 글쓰기 능력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⑤ (나)의 2에서 독서 권장이 글쓰기 자신감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9. 추론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회상하게 한다’의 주어가 ‘간이역은’이므로, ㉠은 간이역이 글쓴이로 하

여금 지난날을 회상하게 한다는 사동문이다. 그런데 주어를 그대로 두고 서술어를 ‘회상한다’로 바꾸면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하지 않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대합실 안의 물건들에서 간이역이 추억의 공간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했으므로, 다음 문단에 대합실 안의 물건들이 소개되는 것이 좋다. 기존의 둘째, 셋째 문단 위치를 맞바꾸면 둘째 문단에 대합실 안의 물건이 소개되고, 셋째 문단에 글쓴이의 상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② ‘마치’는 ‘~과 같다’와 호응하고, ‘이루’는 ‘~할 수 없다’와 호응하므로, ②의 고쳐쓰기 방안은 적절하다. ④ ‘오래된 모퉁이’보다는 ‘오래된 난로’로 이해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10.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대출 도서관의 훼손을 막으려는 의도를 표현하라고 하였는데, ③에서 책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표현되었다. 또 <보기>에서 의인화와 대구의 표현을 쓰라고 하였는데, ‘제’, ‘상처’, ‘당신’ 등에서 의인화 표현이 쓰였고, ‘어디에 어찌하는 무엇’의 형태가 반복되어 대구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작의 의도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고, 의인화의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④ 제작의 의도가 약하게 표현되고, ‘아픔’이라는 의인화 표현이 일부 쓰이기는 하였으나, 대구의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대출 도서관을 훼손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대신 도서관 반납을 잘하라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11. 어휘·어법 (어휘의 음운과 의미의 관계)

정답해설 : a에서 [시켜]는 ‘식혀’와 ‘시켜’의 소리는 같고 의미는 다른 말로 표기된다. 이는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b에서 [이연패]는 ‘이연패’로 표기되며, 그 의미는 ‘두 번 연속 패배함[이연패, 二連敗]’과 ‘두 번 연속 우승을 차지함[이연패, 二連覇]’의 둘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c에서 [가스미]는 ‘가슴이’로 표기되며 신체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고, 심정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정답 ③**

12. 어휘·어법 (청유 표현의 용법 파악)

정답해설 : ④의 ‘먹읍시다’라는 청유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밥 좀 먹읍시다’에서 밥을 먹을 사람은 ‘화자’이며, 밥 먹는 행위는 청자에게 기대되지 않는다. 행위의 주체가 화자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④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청자인 ‘떠드는 친구들’만 조용히 하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② 청자인 아이만 약을 먹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③ 화자와 화자의 친구인 청

자 모두가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⑤ 화자와 청자를 포함한 반 친구 전체가 토의하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

[13-15] 인문, '지행론의 변화와 그 배경'

지문해설 :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과 실학자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바탕이 되었던 '지행(知行)'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먼저 지행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후, '지행'에 대해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다른 입장을 취했던 '홍대용', '최한기' 등 실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즉, 이 글은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겨 내면의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고 지행을 병진(並進)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성리학자들의 견해와, 지행에 대해 새롭게 접근했던 홍대용 및 최한기의 견해를 통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조선 시대의 '지행(知行)'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그 배경

13.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는 내면의 도덕적 수양을 중요시 하며 지행을 병진하는 것으로 여겼던 성리학자들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며, 2문단에는 지행에 대해 기존의 성리학자들과 다르게 접근했던 실학자 홍대용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3, 4문단에는 홍대용과 마찬가지로 지보다 행을 중시했던 실학자 최한기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5문단에서는 지행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학문의 목표(사회 현실의 개혁, 격변하는 시대의 대처)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 지행론 변화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선행후지(先行後知)'는 최한기의 입장인데, 1문단에는 성리학자들의 입장이, 2문단에는 홍대용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지행의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③ 실천을 중시했던 실학자들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행에 대한 입장의 변화라는 글의 논지를 포괄하지 못한다. ⑤ 이 글은 조선시대에 인식과 실천의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1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홍대용은 '지'와 '행'의 병진을 전제하였지만, 이용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행을 바라보았다. 그에 따라 민생을 풍요롭게 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중시하였다. 이는 그가 '지'의 대상을 실용적 측면까지 확대시켰음을 의미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성리학자들은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겼다. ③ 홍대용과 최한기는 '지'보다 '행'을 중시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최한기의 학문의 목적은 세계의 본질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함

이라고 했다. ⑤ 최한기는 모든 지식이 경험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5.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보기>에 따르면 아이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완전한 형태의 언어 표현 구사’를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은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면 ‘행’을 통해 지를 형성하고, 그 지에 의해 새롭게 행하고, 다시 그 행을 통해 기존 지를 검증해 객관적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최한기의 입장에서 보면 '행'에 의해 '지'를 검증해 객관적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마음에 내재한 이치를 중시한 것은 성리학자들이다. ④ 최한기는 경험을 통한 객관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했다. ⑤ 최한기는 자연을 탐구해 물리(物理)를 인식함으로써 사리(事理)가 성립되며, 이 사리에서 인도(人道)가 나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도를 통하여 사리를 얻는다는 것은 최한기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16-19] 고전소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려 전하는 다섯 편의 한문 소설 중 하나로 이승 사람인 총각 ‘양생’과 이승 사람이 아닌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이다.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라도 남원에 사는 양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채 만복사의 구석방에서 외로이 살고 있다. 만복사에는 매년 삼월 이십사일 청춘 남녀들이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양생은 부처님 전에 저포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과 내기를 하여 이긴다면 그 대가로 배필을 점지해 달라는 소원을 빈다. 내기에서 이긴 양생은 불상 뒤에서 동정을 살피다가 부처님 전에 축원문을 올리는 여인이 배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자신의 방에 데려와 인연을 맺는다. 양생은 그 여인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삼 일째 되는 날 여인은 양생에게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헤어질 때 그녀는 은주발을 주며 내일 보련사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부모를 만나라고 말한다. 다음날 양생은 보련사 가는 길에서 여인의 부모와 만나게 되고 여인의 부모에게 은주발을 얻게 된 경위를 말한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여인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자신들의 자식임을 밝힌다. 보련사에 도착한 양생은 음식을 먹는 혼백의 수저 소리로 자신들의 딸의 행위에 의아해하는 부모에게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여자는 양생과 더불어 부모가 베푼 음식을 먹고 나서 저승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라졌다. 양생은 이에 홀로 귀가한다. 어느 저녁 양생은 자신은 타국에 가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당신도 불도를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는 여자의 말을 듣는다. 양생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낸다. 지문으로 나온 부분은 양생이 여인과 3일을 지내는 장면과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의 존재를 그녀의 부모에게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다.

주제: 죽은 여인(귀신)과의 짧은 사랑과 이별

16. 사실적 사고(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해설 : (중략) 바로 앞부분에서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술을 권하도록 하였다. 시녀가 옛 가곡을 부르자 여인이 새로운 가사를 지어 술을 권해도 되겠냐고 물은 뒤, 만강홍 곡조에 맞춰 가사를 짓고 시녀에게 부르게 한다. 여인이 어떤 내용의 가사를 지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인이 시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지, 시녀가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드러내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인의 두 번째 말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중간 부분인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의심치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중략) 아래 부분에 드러나는 시녀의 말 ‘아가씨 장례 때~가지고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중략) 아래 부분에 드러나는 부모의 말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사실적 사고(공간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좁은 판자방)은 양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고 3일간의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다. ㉡(하얀 휘장 안)은 양생과 여인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여인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하는 그의 부모에게 귀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공간이다. 따라서 ㉠은 인연을 맺는 공간, ㉡은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부모에게 여인과의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으로 파악한 ④가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위 글에서 ㉠, ㉡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장소인 것은 아니다. ② 위 글에서 ㉠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은 여인 스스로 들어간 공간이다. ③ 위 글에서 ㉠은 현실적 공간으로 양생과 여인이 현실적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다. ㉡은 현실적 공간에서 기이함(전기적 요소)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⑤ 위 글에서 ㉠, ㉡ 모두 현실적 공간의 일부일 뿐이다.

18. 비판적 사고(주어진 조건에 맞게 감상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드러난 기획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보기>에 드러난 기획 의도의 핵심은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이 작품에 드러난 양생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가벼운 만남과 대비되는 양생의 만남이 부각되어 드러난 답지의 의견이 기획 의도를 적절히 이해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②는 양생이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인연을 부각시킨다는 내용과 만남의 소중

함을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 의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여인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인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여인을 변함 없이 사랑하는 양생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양생의 만남을 일상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먼 의견이다. ③ 죽은 여인의 환생이라는 기이한 상황(전기적 요소)을 부각시키려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 구성하자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강조하자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이 둘의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19. 어휘의 이해(상황에 적합한 한자성어 파악)

정답해설 :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틀어박혀 지낸 상황을 보여 주는 말이다. 따라서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한다’는 말이 이 상황을 적절히 보여 주는 말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인 박명(佳人薄命):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다는 말.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④ 망양지탄1(亡羊之歎)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유사어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이다.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23] 사회, ‘기업 결합의 양상과 심사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업 결합의 양상과 그에 대한 정부의 심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기업 결합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기업 결합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 결합의 위법성에 대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친다고 했다. 이러한 심사 단계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기업 결합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적 진술로 상세화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기업 결합의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 과정

20. 사실적 사고(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이 글의 중심 화제는 기업 결합이다. 기업이 결합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기에 정부는 이를 가려내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고 했고, 그 심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취지는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부정적 기능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기업 결합에 따른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② 이 글은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 결합에 따른 이익의 사회 환원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1문단에서 기업 결합은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④ 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기에, 이러한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기업 결합의 위법성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므로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고 했다. 이로 보아 기업 활동의 위법성 여부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21. 사실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이 글의 절반 이상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문제이다. 도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판단하면 오히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문단에서 ㉠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취득 기업(A)이 피취득 기업(B)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때 결합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했다. 결합이 성립된 다음의 과정은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 다음 과정인 ㉡는 4문단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결합의 장점이거나 불가피성에 대해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했다. 아니라면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답] ③

2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이 글의 3문단에 기업이 결합할 때 두 기업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동일 시장에서 경쟁자란 서로에 대해 대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고 했다. 즉, A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A의 판매량이 20% 떨어지고, B의 판매량 15% 증가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반대로 B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A의 판매량 증가가 가장 크다. 결국 A와 B 두 상품은 경쟁 관계이며 동일 시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A의 소비자들은 B를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③ C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상품은 D이므로 C와 D는 경쟁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두 회사의 결합은 특별한 관련이 없는 혼합 결합이 아니라, 수평 결합으로 볼 수 있다.(5) ④ A의 가격 인상이 있을 때 D의 판

매량에는 변화가 없다. 반대의 경우 즉 D의 가격 인상에 따른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기에 A와 D는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회사가 결합한다면 이는 수평 결합이기보다 혼합 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 어휘·어법(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침해’는 ‘침범하여 해를 끼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라져 없어짐’은 ‘소멸(消滅)’의 의미이다. **[정답] ①**

[24-26] 과학, ‘미생물의 종 구분’

지문해설 : 미생물의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미생물 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미생물은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해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은 미생물이 배양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미생물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 거리’를 토대로 미생물의 종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특정 유전자가 미생물 전체의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미생물 종은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는 정의가 성립되었다.

[주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과 미생물 종의 개념 정의

24. 추론적 사고(논지 전개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미생물의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미생물의 종을 구분하는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후,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나)에 제시된 해결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다)에 제시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마)에서는 유전자 특성을 이용해 미생물 종을 구분하는 것의 의의를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정답] ①

2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외양에 따라 미생물의 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미생물의 외양적 특성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모든 미생물 종에 적용되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해 미생물의 종을 구분한다. 이는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에 따르면,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어떻게 배양되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했다. ④ (가)에서 동식물의 종을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고 했다. ⑤ (라)에서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유전체가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26. 비판적 사고(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글에 제시된 그림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전 거리를 안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두 미생물이 같은 종이기 위해서는 유전 거리가 가까워야 하며, 아울러 유전체 유사도가 70%이상이어야 한다. ②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가 L 미만이 되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III영역은 유전체 유사도가 7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④ IV는 유전 거리도 L미만이고 유전체 유사도도 70% 이상이라 두 미생물이 같은 종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7-29] 회곡

윤홍길 원작/ 윤삼육 각색, ‘장마’

작품해설 : 이 시나리오에는 6·25 전쟁이 한 가정에 준 상처를 그린 윤홍길의 ‘장마’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제목 ‘장마’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끈끈하고, 무덥고, 고통스러운 시기인 6·25 전쟁을 상징한다. 제시된 장면은 길준의 전사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에서 비롯한 한 가족의 비극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한 가족의 비극과 극복

27. 추론적 사고(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외할머니의 아들인 길준의 전사 소식을 접한 외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이모, 동만의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다.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한 집안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를 통해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져온 비극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32에서 이모(길자)가 아버지에게 가져갈 점심 식사를 이고 나가자 동만은 이모를 따라 나온다. 이어서 #33에서 전쟁의 의미를 잘 알지 못

하는 동만이 이모(길자)에게 외삼촌이 죽은 이유를 묻고 있다. 이는 순진한 어린 아이의 시각을 통해 어른들이 초래한 전쟁의 비극성을 반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③은 #33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외할머니가 #32에서 말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들(외삼촌)의 죽음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친할머니의 첫 번째 대사에서는 사부인(외할머니)을 염려하고 있으므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은지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다. ② 동만 또는 #31에서 자신의 어머니, 길자, 남편의 식사를 걱정하고 있다. ④ #31과 #32를 통해 이모는 형부(동만의 부)의 점심을 챙겨주기 위하여 나간 것이다. ⑤ #30의 친할머니 두 번째 대사에서 동정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28. 내용의 추리(구체적 장면의 파악)

정답해설 : ㉞(마당)에서의 인물들의 모습은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추리할 수 있다. #32에서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는 먼 산을 쳐다보며 넋을 놓고 있고, 동만의 행위를 간신히 알아차리고 있다. 그리고 동만의 이모는 동만 아버지의 점심을 이고 나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마당’이 소통 부재의 상황을 해소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8에서 ‘햇빛 울음’에 이어 ‘장맛비’가 제시되는 데서 생겨날 수 있는 감상이다. ② 외할머니의 시선을 카메라가 대신함으로써 원경이 될 수밖에 없으며 동만의 집이라는 한정된 배경에서 확장된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③ #30의 외할머니의 모습이 #32 외할머니의 모습으로 연결되어 시간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되는 외할머니의 상실감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㉞(밥상)을 매개로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동만, 길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29. 비판적 사고(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감상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시나리오의 매개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개 요소란 각 정면을 이어주는 형식적 연결 고리로 공통성, 대립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31과 #32에서 이모가 밥 소쿠리를 이고 나가자 동만이 따라 나오으로써 자연스럽게 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⑤ 이모(길자)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과 #32에서 이모의 성격은 계속 같게 유지되고 있다. **정답 ⑤**

[30-31] 언어, ‘음운의 변별적 자질’

지문해설 : 음운의 변별적 자질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변별적 자질은 이뿐만 아니라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변별적 자질을 나타내는 양분적인 값을 사용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를 동원해 변별적 자질의 역할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주제] 변별적 자질을 통한 음운 간의 대립 설명과 그 의의

3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 받은 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들처럼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이 그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변별적 자질은 본래 음운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변별적 자질을 통해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운적 특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④ 변별적 자질의 ‘+/-’는 해당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음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상호 예측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 준다.

3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각각 ‘ㅇ’과 ‘ㄱ’이다. <보기>에 따르면 ‘ㅇ’과 ‘ㄱ’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할 수 있다. 즉 비음성이라는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되는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A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② ㉡의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은 B를 일컫는다. B에 해당하는 ‘ㅇ, ㄴ, ㄱ’은 모두 [+비음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③ ㉢에 해당하는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ㄴ, ㄱ’이다. 이들은 모두 [+비음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④ ‘ㅂ’과 ‘ㄱ’은 글의 1문단에 따르면 모두 [+양순성]의 자질을 나타낸다.

[32-37] 시가 복합(현대시 + 고전시가)

(가) 조지훈, ‘승무’

작품해설 : 이 시는 승무라는 불교적 춤을 소재로 하고 있다. 화자는 승무를 추는 고운 얼굴의 여승은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동적으로 춤을 출 뿐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런 여승에게서 인간사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읽어낸다. 승무라는 고전적인 춤을 소재로 한국적인 정조, 세상사의 번뇌를 이겨내

려는 인간 보편의 염원을 그려낸 작품이다.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나) 송수권, '지리산 뻘쭙새'

작품해설 이 시에서 화자는 지리산 뻘쭙새 울음 소리에서 느끼는 설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저 먼 지리산의 한 곳에서 뻘쭙새가 울음을 토해내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넘어와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그 섬진강은 다시 남해 군도의 여러 섬을 밀어올리며, 그 울음이 지리산 정상 세석의 철쭉꽃밭으로도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산에서 강,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하가 설움으로 그득하다는 것을 화자는 자신도 설움에 잠기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제] 지리산의 뻘쭙새 소리에서 깨닫게 되는 설움의 정서

(다) 송순, '면앙정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송순이 41세로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담양 제월봉 아래에 면앙정을 짓고 그 곳 주변의 풍경을 노래한 시이다. 이어서 화자는 면앙정의 지형적 위치를 제시한 다음, 면앙정 주변의 근경에서 산봉우리의 원경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이렇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후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다. 즉, 세속의 번잡한 일을 잊고 대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주제]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속에서의 풍류

32.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춤을 묘사한 시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이나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 멈춘 동작까지 모두 묘사되어 있다. 특히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들린 외씨 보선이여'에서는 오이씨와 같은 버선을 신은 발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춤사위를 표현하고 있다.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뻗는 손'에서 손의 동적인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뻘쭙기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이다. 2연에서 '실제의 뻘쭙새가 /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부분은 뻘쭙기 울음소리가 봉우리를 넘고 넘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는 면앙정 주변의 모습을 여러 비유법을 사용하여, 마치 '용이 일어서는 듯', '학이 두 날개를 벌리는 듯', '하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등과 같이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세 작품에서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만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나)와 (다)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33.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흐르는 빛’은 (여인의 얼굴이) ‘정작으로 고와서’ 화자의 마음을 서럽게 하는 빛이다. 그 고운 얼굴빛은 승무를 처음 발견한 화자가 그 자리에 서서 춤을 끝까지 보도록 붙잡아 두는 힘이기도 하다. ②에서는 ‘흐르는 빛’을 여인의 얼굴에서 화자가 발견하는 빛으로 보지 않고, 여러 빛들에 의한 조명 효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여승이 춤을 추는 배경이 달이 지는 ‘밤’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정경들이 어둠 속에 묻히고 무녀(舞女)인 여승이 부각된다. ④ (가)에서 ‘하늘’은 지상의 세계와 대비적인 의미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지상은 인간이 번뇌를 느끼는 곳이며, 세속사에 지친 인간은 ‘하늘’, 그리고 하늘의 ‘별빛’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별’은 인간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게 하는 해탈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여승이 까만 눈동자를 들어 ‘한 개의 별빛’을 향한다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여승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⑤ 6연에서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별빛에 모두오고’라는 구절이 7연의 ‘눈물’, ‘번뇌는 별빛이라’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별빛’이 무녀의 눈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이어준다고 할 수 있다.

34.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파악 및 비교)

정답해설 : (가)에서 여승의 춤사위는 느리게 출발해서 점차 빨라지면서 다시 고요해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화자는 여인에게서 세상사의 번뇌와 설움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에 나비와 같은 춤이 이어진다고 하여 시상을 종결한 것은 여승의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설움’이 지리산에 숨어사는 한 마리 뺨꼭새의 울음임을 깨달았고, 그 울음이 지리산 전체를 울게 만들었으며, 그 울음에서 발원(發源)한 한줄기 강이 멀리 남해 바다로 흘러들어 무수한 섬을 생기게 했음을 깨닫는다. 또한 그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빗깁’로 남아서 지리산의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지막 연의 ‘세석의 철쭉꽃밭’은 이승의 맨 마지막 빗깁로서 앞 연에서 서술된 설움을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④ (가)의 설움은 여승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의 설움은 외부적 대상인 ‘뺨꼭새’에서 비롯되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2연에서 지리산 아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뺨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가 그 소리를 받아 넘기고 그 소리가 뒷산 봉우리를 넘어 울려 퍼진다. 그리고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긴다. 이는 한 마리의 뺨꼭새 울음이

차츰 다른 뻘뻘새로 이어지는, 즉 공동체의 공감으로 확산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뻘뻘새’는 ‘여러 마리의 뻘뻘새’와 다르지 않은 동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가 울음의 주인공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를 ‘석 석 삼 년’ 즉 이십 칠 년의 봄을 더 넘겨서이고, ‘길이 덜 뜬 설움에 맛이 들고’ 나서였음을 1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4연의 첫 행에 ‘지리산 하’, ‘지리산 중’, ‘섬진강’이라는 시적 공간을 배열하여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36. 추론적 사고 (표현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는 지리산의 봉우리가 한 마리 뻘뻘새의 울음소리를 받아넘긴다고 하여 자연물을 의인화한 표현이 쓰였으나, 직유법은 쓰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B]에서는 면앙정 앞의 시냇물을 ‘쌍룡(←쌍룡이 뒤흔는 듯)’과 ‘비단(←긴 김을 펼쳤는 듯)’에, 물가에 펼쳐진 모래밭은 ‘눈(←눈같이 퍼졌거든)’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4음보의 정형적 음보율이 느껴진다.

37. 추론적 사고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다)를 감상하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면앙정’은 작가가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하고 했다. ⑥의 ‘늪은 용’은 제월봉의 형세를 표현한 것인데, 선잠에서 막 깨어난 ‘늪은 용’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한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늪은 용이 선잠에서 막 깨어났다는 것은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펼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무변대야’는 ‘끝없이 넓은 들판’으로 그런 곳에서 무슨 ‘짐작’을 한다는 것은 작가의 이상이 높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③ ‘두 날개를 벌리는 듯하다’는 표현은 비상(飛上)하려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추월산의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서 있다는 것에서, 높고 낮은 다양한 형세의 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38-41] 현대소설 - 이문구, ‘관촌수필(冠村隨筆)’

작품해설 : ‘관촌수필’은 8편의 단편을 묶은 연작소설이다. 오랜 타향 생활 끝에 고향에 들러 옛 터전을 둘러보며 떠오르는 감상을 위주로 서술한 이 작품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제목이 ‘수필’로 되어 있듯이 이 작품은 회고담 형식을 취하면서 주목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에피소드

들을 나열하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제3편 ‘행운유수(行雲流水)’의 일부이다. 여기서는 집안의 허드렛일을 돕는 천한 출신의 ‘옹점이’가 주인공이다. 유년 시절을 고독하게 보내던 ‘나’에게 옹점이는 잊지 못할 친구였다. 그녀는 그릇을 잘 깨는 달링쇠였고 참새 못잖은 수다쟁이였지만, 착하고 소견이 넓었으며 남달리 인정이 많았다. 그래서 잘 살아갈 줄 알았던 그녀가 6·25의 와중에 남편을 잃고 시가 식구들에게마저 냉대를 당하다가 시댁을 나와 약장사 패거리를 따라다닌다는 소문이 들린다. 행운유수와 같이 떠도는 기구한 인생이었던 것이다. 장터에서 그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나’는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 아파한다.

[주제] 한 인물의 가슴 아픈 인생 유전(제3편의 주제)

3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대화 부분에서 특히 충청도 특유의 방언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진술되어 있어서 생생한 느낌을 준다. ‘옹점이(옹점이)’, ‘그렇당께(그렇다니까)’, ‘-헌티(한테)’, ‘전디졌슈(견디겠어요)’ 등에서 이러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자의 독백적 진술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사투리가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신 순수한 우리말과 토속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는 ‘나’로 일관하고 있다. ② 인용된 부분에서는 옹점이를 평가하고 있는 마지막 대목에서만 현재의 시각으로 진술했고, 나머지는 옹점이에 관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③ 서술자인 ‘나’가 주관적 입장에서 주인공 옹점이에 얹힌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⑤ 서술자인 ‘나’의 눈으로 옹점이에 얹힌 일들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 이질적인 시선이 대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9. 추론적 사고(인물의 입장 추론)

정답해설 : 옹점이는 ‘교전비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난 천한 신분의 인물이다. 구시대의 잔재인 신분 의식이 아직 남아 있던 당시에는 이것이 혼사에 큰 장애로 작용하여, 근동의 총각들이 그녀에게 눈독은 들일망정 혼인의 상대로 생각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③은 등장인물의 입장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머니는 옹점이의 음식 솜씨나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인정했으나, 손이 커서 헤픈 데가 있다고 걱정을 했다. ② 옹점이는 부지런하고 손놀림이 빨라 동네의 큰일에 불러 다니며 뒤희다꺼리를 도맡아 해주었고, 그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대견스레 여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④ 근동 사람들은 옹점이가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일도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그녀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⑤ 옹점이는 처자식을 잃고 홀로 된 절름발이 늙은이를 측은하게 여겨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를 돕는다.

40. 추론적 사고(작품의 배경의 추론)

정답해설 : 웅점이가 대소 간에 대사가 있을 때마다 징발되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촌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거나 대소사를 치를 때에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오고 있다. 공동체적 유대감이 남아 있는 전통적인 농촌 사회인 것이다. 또한 혼사에서 신분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모습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관촌과 달리 전채민촌은 원래는 대여섯 가구뿐인 작은 부락이었으나 다른 곳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와 떠들썩하게 변한 동네이다. 그런 동네이니 결속력이 강할 리 없고, 들고 나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개방적인 마을로 봐야 할 것이다. ③ 전채민촌은 떠들썩한 동네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④ 관촌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공간인데 반해, 전채민촌은 읍내에서 지게꾼, 장사꾼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대의 흐름을 많이 타는 공간이다. ⑤ 관촌은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신분을 중시하는 등의 특성을 지닌 곳으로, 아직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전근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가 우위에 있는 마을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채민촌은 읍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41. 비판적 사고(작품의 형식적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웅점이는 신분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성품과 훌륭한 일솜씨로 집안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천성이 착하고 발라서 나온 것이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해 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볼 만한 행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웅점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녀의 행적을 회고하는 이유는 글의 마지막 대목에 나타나 있듯이 ‘주체성’ 있는 사람으로 서술자의 인상에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웅점이가 인정 많은 인물임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傳)’에서의 주요 행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B]에서 서술자는 웅점이가 일찍이 진정한 주체 의식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아주 후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④ [B]에서 서술자는 근래에 사람들이 주체 의식이니 주체성이니 하는 말들을 남발하지만 정작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세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⑤ [B] 이전까지 웅점이의 행적을 전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고유어와 토속적인 표현들을 위주로 말하듯이 서술했다. 그러던 것이 [B]에 이르러서는 어휘도 주체성이니 주체 의식 같은 관념적인 어휘를 동원하고 말투도 다소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은 ‘전(傳)’에서 행적과 인물평을 문체를 달리하여 서술한 것과 꽤 닮았다.

[42-45] 예술, ‘음높이와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

지문해설 : 악보에 쓰이는 기호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먼저 악보에

서 쓰이는 기본적인 기호에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호들과 음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음을 밝히고 나서, 다음으로 이런 기호들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5선’과 ‘음자리표’를, 음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로는 ‘음표’와 ‘박자표’를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이들 기호들은 처음부터 사용된 것이 아니다. 발달 과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음높이와 음길이를 구분한 후 과정에 따라 각 기호들의 발달과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기능과 유용성까지 설명함으로써 각 기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주제] 악보에서 음높이와 음길이를 표시하는 기호의 형성과 발달 과정

4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에 따르면 음높이를 표시하는 5선은 14세기 무렵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박의 묶음을 표시하는 박자의 개념은 새로운 리듬 양상을 보여주는 14세기에 시작되었다. 즉 14세기에 이르러 음높이와 음길이의 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음표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리듬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③ 음자리표는 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박자표는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리듬은 음의 길이와 관련이 깊다. ④ 9세기에는 가사 위에 간단한 기호로 음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표시했다. ⑤ 음자리표는 11세기경부터 사용되었는데, 이때부터 2선이나 4선 위에 음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2선이나 4선 악보에서도 음자리표를 볼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옛날의 음악을 현재에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악보가 있기 때문이라며 악보의 의의를 제시했다. 그런 다음 악보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음높이를 나타내는 것과 음길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누어, 그 기호들의 발달과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44. 창의적 사고(개념과 원리의 창의적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A는 3분할이고 B는 2분할이다. 3분할과 2분할은 각각 3박자와 2박자 계통의 기초가 된 것이다. 3박자는 ‘강-약-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묶은 것이며, 2박자는 ‘강-약’의 박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묶은 것이다. 따라서 A는 ‘강-약-약’, B는 ‘강-약’으로 연주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프랑코 기보법’에 사용되는 음표들은 음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것들이다. ② 4문단에서 ‘3’이라는 숫자를 ‘완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음길이를 셋으로 분할하는 완전 분할을 사용했다고 했다. 즉 3분할은 완전 분할이고 2분할은 불완전 분할이다. ③ ‘악기 3’은 ‘세미브레비스’ 음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음표는

가장 짧은 음길이를 나타낸다. 이는 ‘악기 3’으로 연주되는 음의 리듬이 가장 빠르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⑤ <보기>의 A와 B는 동시에 연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A의 ‘악기 2’의 룡가 1개는 B의 ‘악기 3’의 세미브레비스 6개와 연주되는 시간이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45. 어휘·어법(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①의 ‘정하고’는 기보법에서 네 종류의 음길이를 규칙으로 결정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의 ‘설정(設定)’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개정(改定)’은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을 의미한다. ② ‘판정(判定)’은 ‘판별하여 결정함’을 의미한다. 문맥상 ‘판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인정(認定)’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을 뜻한다. ④ ‘추정(推定)’은 ‘추측하여 판정함’을 의미하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46-50] 기술, ‘장비의 신뢰도 분석의 기본 개념과 원리’

지문 해설 : 이 글은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직렬 구조와 병렬 구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신뢰도 구조와 물리적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n 중 k’ 구조 또한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글은 장비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여러 대상의 개념을 규정하고, 개념 간을 비교·대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신뢰도 분석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장비의 신뢰도 분석의 개념과 원리

46. 추론적 사고(내용의 논리적 추론)

정답 해설 : 6문단에서 ‘n 중 k’ 구조는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이 구조는 n개의 부품 중에서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것이다. 그런데 $n=k$ 일 때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을 해야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에 이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와 같아진다. 2문단의 3행에서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직렬 구조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을 해야 시스템이 정상으로 가동되기에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A의 신뢰도를 구했다. 이는 부품 간의 상호 작용이 있다면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문단에서도 역시 마지막 문장에서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B의 신뢰도의 값 역시 달라진다고 했다. ④ 부품이 동일할 때, 직렬 구조보다는 병렬 구조에서 경로의 수가 더 많다. 제시된 그림

은 2개의 부품이 들어있는 시스템의 경로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한 2문단의 첫 문장 설명을 보면 A 구조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라 했다. 반면에 3문단의 첫 문장에서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두 부품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부품 1이 고장 났을 때 작동하는 경우, 부품 2가 고장 났을 때 작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⑤ 2문단에서 0.72의 신뢰도란 100번 가운데 72번이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이라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7.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해설 : <보기>는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다. ㉠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를 찾는 것이다. 신뢰도란 그 시스템 즉, 카메라가 작동할 확률과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는 카메라의 손실된 녹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카메라의 작동이나 고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카메라의 고장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카메라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뢰도만큼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상으로 보증한다는 것이다. ②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온도 조건을 명시한 것이기에, 이를 벗어나면 신뢰도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③, ④ 이는 카메라가 피해야 할 조건들이다. 즉, 이러한 조건 하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주어진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48. 비판적 사고(수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 해설 :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구조라면 하나의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4개 모두를 넣어야 시계가 작동한다는 것은 이것이 직렬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로등 1개가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켜져 있다. 하나의 부품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병렬 구조이다. ② 퓨즈 2개가 모두 끊어졌을 때 작동을 멈추었으며, 1개를 넣어도 작동한다고 했기에 병렬 구조이다. ③ 1개가 고장 났고, 이것을 제거해도 나머지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병렬 구조이다. ⑤ 이중 제동 장치이며 하나가 고장 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해서 차량이 정지했다. 병렬 장치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장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49. 창의적 사고(개념과 원리의 시각적 표현)

정답 해설 : [가]는 장비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는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는 병렬 구조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 구조를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이 시스템의 물리적인 구조는 직렬 구조이다. 단지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하나가 작동하면 역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는 병렬 구조이다. 그러므로 직렬 구조 중에서 펌프가 가장 왼쪽에 위치한 것이 정답이다.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왼쪽으로 흐르는 것이 역류이기 때문이다. 정답 ①

50. 어휘·어법(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㉔는 ‘여럿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의 안’의 의미이다. ①에 쓰인 ‘가운데’가 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양쪽의 사이’ ③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범위의 안’ ④ ‘양끝에서 거의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 ⑤ ‘일정한 공간의 중앙’